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9년 표어 §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 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증거 I

(요 1: 29-34)

이종윤 원로목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증거를 확실하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또 깊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 몇 가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증거는 독립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증거자이지만 내 힘, 내 자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자기를 알려준 것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 증거해야 되고, 그는 무엇을 하신 분인가,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어떻게 그와 함께 인격적 교제를 가질 수 있는지를 증거해야 됩니다.

1.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본문의 요한의 증거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다섯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세례 요한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증거하다가, 다음에는 유대 민중을 향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이튿날’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가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목격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본 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살기 전에 광야에서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당당하게 나타날 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 출애굽기 29:38에 보면 아침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이란 말이 나옵니다.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어린 양을 흠 없는 것으로 아직 더러운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한 어린 양을 아침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둘째로, 출애굽기 12:3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 유월절을 기념하는 유월절 양, 다시 말해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 어린 양을 잡아 바쳤습니다.

셋째로, 레위기 4:32를 보면 속죄물의 어린 양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에 특별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물로 바친 것이 깨끗하고 흠 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넷째로, 이사야 53:7의 고난의 어린 양입니다. 보

통 어린 양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고통을 당하는 어린 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요한이 가리키는 신약에서 말하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한 양입니다. 사람이 준비한 어린 양은 또 사람이 준비할 수 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은 한 번으로 족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② 세상 죄를 지는 양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그 죄를 우리에게서 어린 양에게로 옮겨 버렸다는 말입니다. ‘지고 옮기는 것’ 바로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지고 우리로부터 옮겨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면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영생이 생겨진 것입니다.

③ 먼저 계신 분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요 1:30). 예수님이 요한보다 6개월 늦게 나셨는데도 요한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재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미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④ 인간의 성정으로 알 수 없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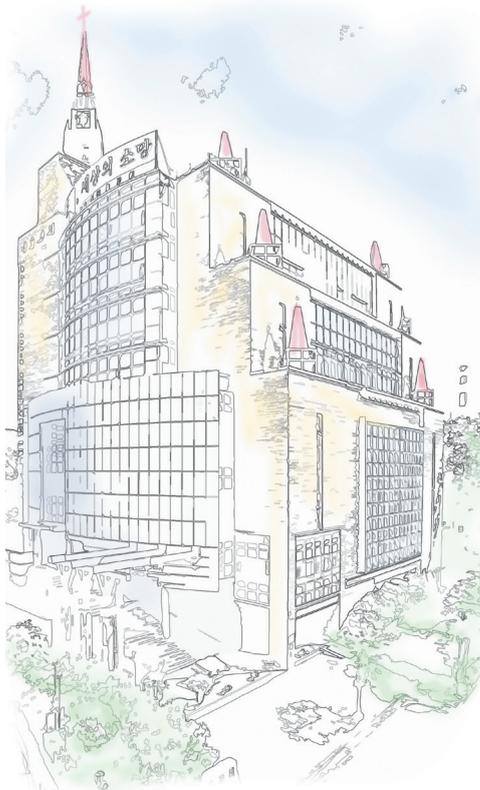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요 1:31).

세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요한같이 훌륭한 선지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성정으로는 메시아를 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마 16:17, 행 26:9).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와 기독교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궁극적인 실체를 찾아 올라갑니다. 기독교는 찾아 쫓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 같고 많이 가진 것 같지만 사람의 지식과 경험은 제한되어 있어 별것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지식, 경험, 한계를 그대로 폭로시킨 것입니다. 요한은 “나도 몰랐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므로 내가 비로소 그분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인 줄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고전 12:3).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므로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2019 사명자대회 시작하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적 교회로 소생케 하옵소서!"

발대식 : 오늘 찬양예배 시

10. 6(주) - 11. 24(주) 50일간

특별새벽기도회 : 11. 18(월) - 11. 23(토) 새벽 5:00 ~ 6:00

2019 사명자대회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50일간 대장정을 시작한다.

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적 교회로 소생하기 위한 2019 사명자대회 발대식이 찬양예배 시에 있으며 교회설립 기념주일까지 50일간 계속된다.

서울교회는 현재 절체절명의 시기에 서 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앞드려 기도해야 한다.

교회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설립된 서울교회는 세계복음화, 교회전국화, 문화기독교화를 지향하며 달려왔다. 지금은 비록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주님의 몸 된 신 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도로, 서울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다시 재건하는 2019 사명자대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 주 제 ·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적 교회로 소생(蘇生)케 하옵소서!

· 주제성구 ·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행 2:42-43)

· 일 시 ·

10. 6(주) - 11. 24(주) (50일간)

특별새벽기도회 : 11. 18(월) - 11. 23(토)

새벽 5:00 ~ 6:00

· 주제찬송 ·

208장 내 주의 나라와

· 행동강령 ·

- 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합심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한다.
- 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사명자로서의 본분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한다.
- 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덕을, 자신에게는 절제를 생활화 한다. (벧후 1:5-7)
- 라. 전교인이 낮 12시부터 1시 사이에 공동기도제목으로 3분간 느헤미야의 기도에 동참한다.

· 특별새벽기도회 찬양대 ·

- 11월 18일(월) / 가브리엘 찬양대
- 11월 19일(화) / 할렐루야 찬양대
- 11월 20일(수) / 임마누엘 찬양대
- 11월 21일(목) / 은빛 찬양대
- 11월 22일(금) / 시온-호산나 찬양대
- 11월 23일(토) / 베들레헴 찬양대



사명자대회 기도문

성삼위 하나님 앞에 앞드려 간구하옵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 첫째. 초대 교회와 같이 함께 배우고, 사랑하며,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교회로 재건되게 하옵소서.
- 둘째. 주님께 돌아오는 **능력의 역사**,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역사**, 진정한 회개가 있는 **통회의 역사**, 신앙이 머리에서 생활로, 교회에서 가정으로, 나에게서 이웃으로 퍼져나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 셋째. 말씀과 기도와 봉사가 더 깊은 단계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 넷째. 피동에서 능동으로, 반응에서 섬김으로,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삶의 방향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 다섯째. 사랑과 인내와 소망, 신행일치(信行一致)의 모범적 삶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신실한 담임목회자를 찾아 보내주옵소서
- 여섯째. 국가와 교회와 가정을 세워주신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다스려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윤헌기·정미자 장윤기·노애리 박동식·유하영 박정자 이경희 김영선·권택숙 김규태 이선희 전용순 문가림 윤요섭·안재희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제19회 군선교신학회 심포지움

10월 10일 (목) 13시30분
연세대 신과대학 채플실

제19회 군선교신학회 심포지움이 한국군선교신학회(회장 이종윤 원로목사) 주최로, 10월10일(목) 13시30분부터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채플(2층)에서 "병역대체복무제 진단과 기독교임장"의 주제로 열린다. 이날 이종윤 원로목사의 기조강연이 "사이비 이단종파인 여호와증인에 대한 신학적 비판과 병역대체복무제에 대한 기독교임장"의 제하로 발표된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10월 의료선교 상담 일정

- 10월 6일: 정철웅(일반외과), 이경진(성형외과)
- 10월 13일: 정현구(치과), 오병호(피부과)
- 10월 20일: 노제현(안과), 김동준(내과)
- 10월 27일: 노선균(흉부외과), 김동건(치과)

- 상담 예약: 정현구 집사 010-2728-5939

교구별 연합모임 일정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행 2:42-43)

교구	날짜	교구	날짜
1교구	10월 5일/토	9교구	10월 9일/수
2교구	10월 9일/수	10교구	10월 12일/토
3교구	10월 18일/금	11교구	10월 19일/토
4교구	10월 19일/토	12교구	10월 9일/수
5교구	10월 26일/토	13교구	10월 3일/목
6교구	10월 9일/수	14교구	10월 19일/토
7교구	11월 2일/토	15교구	10월 9일/수
8교구	9월 19일/목	16교구	10월 5일/토

불법용역 동원 서울교회 침입 박노철 목사 측 2명, 핵심 용역 2명과 함께 법원 재판에 회부되다

- 오는 11월 19일(화) 첫 재판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은 2018. 3. 9.(금) 박노철 목사 측이 용역원 60여 명을 동원하여 교회 현관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하여 교인 및 직원들을 다치게 하고 사무실에 난입한 후 교회 2층 이상을 점거한 사건 관련하여, 무려 1년 6개월여 수사를 마치고, 2019. 9. 27.(금) 박노철 목사 측과 핵심 용역원

등 4명을 특수건설물침입죄 등을 적용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곧바로 오는 11월 19일(화) 오전 10시 30분으로 첫 공판기일을 잡아 이들에게 소환장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위 4명에 대한 검찰의 구체적 기소내용은 추후

공소장이 확보되는대로 게재할 예정이다.

거룩해야 할 교회를 폭력으로 침탈한 부끄러운 행동들에 대해 회개는커녕 조그만 반성조차 외면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올바른 재판으로 교회회복의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2019 사명자대회를 시작하며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차도훈 장로
(2019사명자대회 본부장)

해마다 우리 서울교회는 교회설립 기념주일 전 50일간 사명자대회를 개최합니다.

금년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적 교회로 소생케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사명자대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와 진리를 따라 바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160여 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1991년 10월 6일 주일 첫 예배를 드리고, 50일 후인 11월 24일 주일이 추수감사절이 되는데 오순절의 의미를 따라서 이 추수감사절을 교회창립일로 정하고, 그때부터 7주 동안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뜨거운 새벽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매년 50일씩 진행되고 있는 사명자대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를 설립하기 전 50일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헌신과 사랑을 고백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전도의 사명을 받았던 교회 역사와 당시의 초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복음에 빛진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건물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시던 선배들의 간절함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믿음을 계대하는 사명자로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분쟁 중에 있는 서울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을 아파하며, 바른 믿음과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과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며 사명자대회를 갖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라는 비전을 받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 11:40)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라는 교회목표를 세우고,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이 되고자 애쓰며 달려왔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설립 당시부터 해오던,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맞이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바라는 간절함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명자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사명자대회는 말씀 운동이요, 기도 운동이며, 전

도 운동입니다. 사명자대회 50일 동안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에 집중하시면서 우리 개인과 서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목회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사명자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워주신 주의 몸 되신 서울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신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경적 교회로 빠르게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시는 사명자대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며,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귀한 사명자대회의 24시간 연속기도와 합심 기도에도 어린 아이들로부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가족부 수료

지난 6월에 등록한 정주원 성도(5교구)가 새가족부 교육을 8주간 받은 후 지난 주 9월 29일(주) 새가족부를 수료하였다. 교회가 혼란한 상황에도 빠지지 않고 교육에 참여하여 수료한 정주원 성도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NO! YES!

1회용 종이컵 사용을 자제합니다!

2019 성경암송대회 예선 은혜 중에 마치

본 선 : 10월 12일(토) 오후 2시

2019 성경암송대회 예선이 지난 주 교회학교별로 열렸다. 1년 동안 준비하고 암송한 성경말씀을 암송함으로써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양육받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본선은 10월 12일(토) 오후 2시에 열리며 대상은 예선을 거친 총 55명 (개인 17명, 단체 8팀) 완료 1명이다.

· 장소

- 102호 교사실 - 교육 1국 미취학, 영어예배부
- 102호 예배실 - 교육 1국 취학, 일반 단체
- 104호 - 교육2~4국 및 일반 개인,
- 101호 (웨민홀) - 대기장소

- **시상:** 대상, 사랑상, 믿음상, 소망상, 장려상
- **심사위원:**
 - 교육 1국(미취학, 영어암송) : 김은숙 전도사 오광환 장로
 - 교육 1국(취학), 일반(단체) : 박미라 전도사 최형열 장로
 - 교육 2~4국, 일반(개인) : 최승원 전도사 송인권 장로
- **시상 및 발표:** 10월 13일(주일) 찬양예배 시 대상에 한하여 실시
일정 진행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0월 10일(목) 군선교신학회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기조강연을 한다.
- 득남 : 7교구 오명걸 집사 이수민 성도 10월 4일(금)
- 금주의 식사 : 전광영 집사 김인숙 권사 가정 (김인숙 권사 철순을 감사하며) 마파두부, 깍두기
- 간식 제공 : 김형배 집사 고정숙 권사 마이니 비타C구미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10월7일	월	막 4-5		사 1-8	
10월8일	화	막 6-7		사 1-7	
10월9일	수	막 8-9		사 8-14	
10월10일	목	막 10-11		사 15-26	
10월11일	금	막 12-13		사 27-33	
10월12일	토	막 14		사 34-41	
10월13일	주일	막 15-16		사 42-49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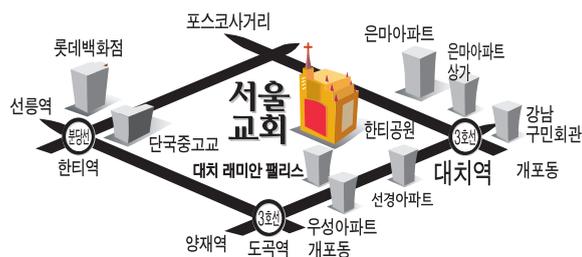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10월 6일(주)부터 시작되는 2019 사명자대회에 우리 모두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사도로 불러주옵소서.
2. 교구별 연합모임에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3. 10월 12일(토) 전교인 성경암송대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주장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당면한 국내외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여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배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